

8주년 특집 | 그때 그 사람

지난 1년간 아름다운동행에 보도되었던 사람들의 '취재 이후' 이야기를 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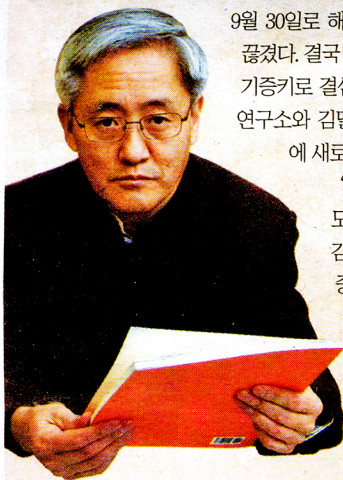
크고 작은 변화의 소식도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직하게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01. 김달진미술연구소 김달진 소장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공간 마련”

김달진 소장(김달진미술연구소)에게 2014년은 큰 결단의 시간이었다. 최근에 지난 40여 년간 수집한 미술 자료 2만여 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것.

김달진미술연구소는 지난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전용공간임차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마포구 창전동에서 한국미술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수집한 자료를 무료로 누구나 열람하도록 해왔으나, 지난 9월 30일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지원도 끊겼다. 결국 김 소장은 고민 끝에 미술관에 자료를 기증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지난 11월 김달진미술연구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종로구 홍지동에 새로운 건물을 매입, 이전하였다.



“비록 어렵게 공간을 마련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미술 자료 보관은 중요한 일이며,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중요 미술 관련 도서 및 자료들은 예약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3월경 개관하게 된다.

02. 한아장학재단 이충선 이사장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

“후손에게 유형의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들의 뼈와 살을 무르게 하는 독(毒)이다”라는 생각에, 사재를 털어 한아장학재단을 설립한 미국 이민 1세대 이충선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여성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 제3세계에서 선발되어온 여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첫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던 중 아름다운동행과 인터뷰를 갖게 되었다.

이후 이 이사장은 이화여대 창립 기념행사에 초대되어 공연하던 아프리카음악대학(학장 박마리아 선교사) 단원들과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박마리아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꿈을 이 이사장과 나누다 졸업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간절했던 꿈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장학재단 이사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나갈레마 양의 입학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이화대학 음악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동안 전액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양쪽 다’ 고백하고 있다.

이충선 이사장은 “50년대 어렵던 시절, 한국의 젊은이들도 미국이나 선진국의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인재양성이 이뤄졌다”며,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을 보탬 제2, 제3의 한국인 헌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03. 마리몬드 윤홍조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야기, 앱 통해 함께 공유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다음세대로 하여금 그 ‘아픔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책임 있게 살아가자는 운동을 펼치는 청년기업 마리몬드(www.marymond.kr).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넓히기 위해 피해자 할머니의 압화 작품을 상품에 새겨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보도 이후 여러 크리스천 매체에서 취재요청이 와 감사했다고 전하는 윤홍조 대표는 “더욱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동행에서 보도된 크리스천 청년 위주로 모임이 생기게 되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주’라는 명칭의 모임이 생겨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것.

윤 대표는 “마리몬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12월에 출시합니다. 상품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시공간 제한 없이 모든 세대가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동행 2015 감사다이어리 표지도 마리몬드와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했다. 마리몬드의 압화 디자인 패턴을 사용, 진정한 감사를 함께 찾아간다.

04. 어글리썬 한상희 대표

“이웃돕기도,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다음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천연비누가게 어글리썬(www.uglysoap.co.kr) 한상희 대표에게 보도 이후 소식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아름다운동행에 기사가 나간 후 여러 크리스천 매체에서 취재요청이 왔어요. 감사해요.”

노숙인을 위한 헌 옷 한 쌍과 비누 한 개를 바꾸는 캠페인 뿐만 아니라 천연비누 판매 수익금을 노숙인 및 어려운 이웃돕기에 보냈던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던 것. 어글리썬은 최근에는 선교비누도 제작, 기부하고 있다. 결코 넉넉해서가 아니다. 한 대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하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1000개의 전도용 비누를 제작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 선교에 쓰인다고 하네요.”

한상희 대표는 또한 올해 초 아름다운동행에서 제작한 감사노트 광고의 모델로 재능 기부를 하기도 했다.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요”라며, “저도 어글리썬을 통해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